

군산시, '도시통합센터' 개소 예정

스마트시티 구축 위한 첫걸음... 위기상황 신속·효율적인 초기대응 체계 마련

군산시가 7월 스마트시티 기반의 도시통합센터를 개소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산시 도시통합센터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군산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총 23억 원의 건축비가 투입됐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도시통합센터를 포함한 21개의 과업을 추진했으며, 총사업비는 121억(통합센터 건축비 23억 포함)에 달한다.

도시통합센터 개소는 군산시의 미래비전인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앞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시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통합센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도시의 안전관리 강화 △관계 기관 간 협력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은 교통 상황, 대기질, 침수 정보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군산시가 7월 스마트시티 기반의 도시통합센터를 개소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집하여,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도시의 안전관리 강화는 도시통합센터에서 군산시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실시간 관제 및 안전관리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도시통합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급 상황 발생 시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도시통합센터 개소를 통해 스마트시티 관련 제반을 더욱 확장하게 된 한편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으로 교통, 안전, 환경, 생활편의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산업단지 내 주요 기반 시설의 실시간 관제 및 안전관리, 관계 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가 완성되어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초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현중 군산시 교통환경수산국장장은 "도시통합센터 개소를 통해 군산시가 스마트시티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하반기부터는 지역 맞춤형 스마트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국가예산 확보 중앙부처 '발품'

강영석 부시장, 부처 예산안 확정 앞두고 산림청·국가유산청 방문
석재산업 지원센터 건립·고도보존 등 주요 사업 예산 반영 당부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설득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은 27일 산림청과 국가유산청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안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강영석 부시장은 산림청 김석문 산지정책과장을 만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석재산업 지원센터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익산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술 연구 개발 거점 시설을 구상하고 있다. 국가 기간 사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본설계 용역에 필요한 국가예산 1억 7,400만 원을 요청했다.

익산의 천만 관광 시대를 견인할 지역 역사·문화 사업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강 부시장은 국가유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윤수 고도보존육성팀장에게 문화유산 보존 및 고도(古都) 지

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사업들의 타당성을 적극 피력했다.

주요 사업으로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백제왕궁 인접 국도(1호선) 선형 개선 사업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등 핵심 문화유산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반영을 당부했다.

백제왕궁은 실체가 규명된 유일한 고대 국가의 왕궁 유적이라는 점에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시는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백제왕궁을 재현해 내고, 이곳에 익산 백제 만의 정체성을 담아낸다는 구상이다.

강영석 부시장은 "국가예산은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 협력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KBS전국노래자랑 '군산' 편
28일 월명실내체육관에서 녹화

군산시는 KBS 최장수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이 6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군산시 월명실내체육관에서 공개녹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가 자격은 기성 가수를 제외한 군산시민 및 군산시 소재 직장인, 학생 등 선착순 300팀으로,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군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해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예심은 6월 26일 오후 1시부터 군산시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예심을 거쳐 15팀 내외의 본선 참가팀을 선발 계획이다. 한편, 6월 28일 본선 녹화 당일에는 약 3,500여 명의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남희석 MC의 진행으로 초대 가수 김성환, 임현정, 강혜연, 박군, 홍지운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보건소,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운영

군산시보건소가 여름철을 맞아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의 확산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온이 상승하고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하절기에는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감염병 발생 위험 비율이 높아진다. 특히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구토, 설사 등 장관계 증상을 유발하며,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콜레라·장티푸스·살모넬라감염증 등이 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6대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소는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담 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고품질 '탐마루 수박'
출하 시작... 판로 확대 박차

익산시가 고품질을 자랑하는 '탐마루 수박'의 출하에 맞춰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올해 탐마루 수박 연매출 약 80억 원 이상을 목표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익산탐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유통망 다변화에 힘쓰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탐마루 수박은 금강변의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는 망성·용안·용문면 지역을 중심으로 연 2기작 체제로 재배되고 있다. 1기작은 4월 조기 출하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2기작은 7월 중순 출하된다.

특히 참파 집목 기법 등 고품질 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당도와 식감, 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지난달에는 수도권 현대백화점에서 시식·할인행사를 열어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달부터는 네이버·카카오·농협몰 등 온라인 소싱몰과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탐마루 소싱몰(www.topmaru.net)을 통해 수박을 포함해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지방정부 인공지능 혁신대상 본상 수상

시민 안전·편의 시로 혁신... 사회안전분야 '대상' 선정

군산시는 '2025년 제1회 지방정부 인공지능(AI) 혁신대상' 사회안전분야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아주경제가 주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지방정부 인공지능(AI) 혁신대상'은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부 기반 정책·시책, 경쟁력 제고·행정 혁신에 노력하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해 시상한다.

이번 대회에는 광역 및 전국 지자체에서 1차 총 45건(사회·안전 분야 15건)이 선정되었으며 최종 6개 분야 12개 광역 및 기초단체가 선정됐다. 군산시는 '사회안전분야'에 '지능형 인공지능(AI) 융복합 CCTV 선별 관제시스템'으로 공모 신청하여 본상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상을 받았다.

지난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군산시 김영민 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중 군산시의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배



회, 쓰러짐, 폭행 등 객체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위험·위급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로 영상 및 음원이 자동 전송되는 한편 실시간 CCTV 영상 분석으로 위험 상황을 자동 감지하기도 한다.

군산시 스마트도시과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 후 기존 인력 중심 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성공적인 인공지능(AI) 관제시스템 운영 속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융합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군산시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장, 중장년 창업 현장 격려 나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방문해 성과 확인·애로사항 청취

익산시가 중장년 기술창업자들과 소통하며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실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7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센터장 이효선)를 방문해 성과를 확인하고, 입주기업과 창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현을 시장은 센터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중장년이 가진 경험과 기술력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익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만 40세 이상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 제공, 정부지원 연계, 교육 등을 통해 매년 10여 건의 신규 창업을 이끌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중장년 소득기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지난해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운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S등급)를 받았고, 지난 3월에는 지역창업특화지원 전문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운영 성과를



정현을 시장

인정받고 있다.

이효선 센터장은 "익산시는 늘 중장년 창업자 곁에서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지역 중장년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

사하다"고 전했다.

정현을 시장은 "중장년층이 가진 경험과 기술력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창업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만 40세 (예비)초기 창업자를 상시 모집 중이며, 입주공간 제공과 최대 300만 원 규모의 선택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화(063-841-7480)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